

2018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Have you heard of augmented reality? Before you answer, try to put yourself in some different situations. Imagine yourself walking down the street with a friend, and you suddenly see a jacket you like on someone else. You are able to look it up instantly. Feeling hungry, you drop into your favorite local hamburger shop. A display pops up to warn you that you are in danger of consuming too much fat for the day. You are uncertain about your choice of a cheese burger, but then decide to have it anyway. After the meal, you walk into a coffee shop with your friend. At that moment, you find a man whom you find attractive. Naturally, you want to know more about him. Within seconds, you get his name, the number of friends he tweets with and even every word of his last post.

These situations are possible with an augmented reality (AR) system, one of the newest innovatio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R has been around for only twenty years. It is a technology that superimposes graphics, audio and other virtual enhancements over a live view of the real world. This information can be relayed to its users through either head mounted displays or handheld devices.

AR came to public notice when it was adopted in the advertising sector. The idea of user interaction based on AR was used most efficiently in a major promotion campaign by a Swiss watch company. The idea was that you put a dummy paper watch around your wrist, which in reality was simply a thin piece of card with a code on the face. When held in front of the web camera, the web application displayed it on the screen as a virtual version of the watch of your choice. You could also browse and choose the watch that you liked. It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R promotions with people taking the paper watches home as souvenirs.

[나]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델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중략) 강릉 해현령을 지날 때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고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중략) 당신이나 나나 어찌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영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지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열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다] 잠에서 깬 주인공은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한 것을 알게 된다. 딱딱한 등껍질, 배의 주름과 무수히 많은 가느다란 발들. 그레고르 잠자에게 벌어진 이 사건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에도 그레고르는 가장 먼저 직장에 지각할까 봐 걱정하였다. 그는 파산한 아버지, 친식이 심한 어머니, 미성년인 누이동생을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다. 그레고르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지만 이날, 단 한 번의 지각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한다.

집에서는 그레고르가 잠긴 방문 틈새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 어머니는 벌레가 된 아들을 보고 놀라 실신하고, 아버지는 거실로 힘겹게 나간 그레고르를 혐오스러워하며 그에게 사과를 집어던진다. 작가 카프카(Kafka, F., 1883-1924)는 “변신”을 통해 현대인이 처한 실존 상황을 보여준다. 성실한 직원이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지각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일했으나 가족들은 벌레가 된 그를 보고 슬퍼하기는커녕 마주치는 것조차 피한다. 가족마저도 그레고르를 애정과 연민으로 대하지 않았다.

또한 그레고르는 가족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알아들으면서도 인간의 소리를 낼 수 없다. 듣기만 할 뿐 표현할 수 없기에 진심을 나누지 못한다. 그는 결국 더러워진 자기 방에서 여러 날을 굶주리다가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숨을 거둔다.

[라] 자코메티는 인간이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매 순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가늘고 긴 형상, 질량은 배제되어 정신만이 남아 있는 일련의 인간 시리즈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배제함으로써 극한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존재론적 고독을 가늘고 긴 뼈대의 입상들로 치열하게 그려냈다. 그에겐 연장을 갖는 신체보다 사유하는 영혼이 중요했으리라. 입상들은 세계 속에 홀로 던져진 인간의 불안을 극대화한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육신, 물질적인 질감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철저한 고독자로서의 인간의 속성을 처절하게 재현했다. 인간의 절대적 고독은 부피와 질량을 완벽하게 제거할 때 가능하다.

인간의 가시적 성질들은 본질을 덮은 외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 팔, 마침내 전부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절대 고독자로서의 인간을 고통스럽게 드러냈다. 가시적 외연을 제거할 때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명료하게 수면 위로 부상한다. 인간은 의식이다.

[마]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흔히 사유의 범주로 고려한 관념들과 달리,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특성을 열거한다. 그들은 번민, 절망, 외로움, 죄의식, 불안, 공포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무력감과 불안정을 깨닫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삶이 의미 없고 덧없는 꿈과 다를 바 없다는 허무감을 산출한다. 번민과 우울함은 인간을 절망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야기한다. (중략)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고 하였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만들어진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만들어진 대상물의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유신론자(有神論者)들은 종종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이미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실존하는 존재이며,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들은 모두 자신의 본성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는 인간에게는 고정불변의 본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관념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유는 인간에게 달성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과 같은 관념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먼저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미리 정의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리 생각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 있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에게 열려 있는 많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 (중략)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인간이 일상적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삶은 모순 덩어리이고 비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절망과 번민을 경험하는 인간은 무가 그를 감싸 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공포감은 그가 삶의 상황들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대할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

[마] 영화 ‘매트릭스’가 다루는 것은 단지 가짜와 진짜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생기는 곤란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영화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짜가 진짜를 대치하고 맞서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현실’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가짜와 진짜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중략) 영화에서 스미스를 비롯한 요원들은 순전히 가짜, 디지털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인공 지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하고 추리하고 의심하고 판단한다.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매트릭스로 바꿔 놓으려 한다. 말하자면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통제하는 세계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모에 맞서는 한 무리의 저항 세력이 있다. 그들은 매트릭스로 전락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서 빠져나와 시온이라는 이름의 컴퓨터 우주선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매트릭스의 굴레로부터 세계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시온의 지도자 모피어스는 그 일이 자신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진정한 구세주 ‘그(HE)’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는다. (중략)

영화에서 네오는 ‘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컴퓨터 회사의 평범한 사원이었고 틸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훔쳐내서 가뭇돈을 마련하곤 했던 단순 해커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모피어스는 네오를 ‘그’로 믿었고 대원 트리니티는 이러한 모피어스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선지자 오라클은 네오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는 ‘그’가 아니다.” 결국 네오가 ‘그’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네오 자신의 선택과 결단,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주체적 존재로서 네오가 먼저 있었고, 그의 선택에 의해 ‘그’로 변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의 상황은 한껏 헐리우드적 상상력이 만들어 낸 허구에 지나지 않을까. 인조인간, 디지털 인간, 인공 지능, 사이버 생명 등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흥미로운 공상거리에 불과한가. 인간 복제가 목전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것은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부딪쳐야 할 실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 진짜 인간의 기준은 변함없는 것이니,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가짜 인간과 진짜 인간을 구별한다. 그것은 선택, 믿음, 사랑을 통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며 실존하는 대자 존재이다.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현실 세계에 대하여 비현실 세계가 갖는 의미를 각각 논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의 카프카와 제시문 [라]의 자코메티가 자신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시오. [30점]

3 제시문 [라], 제시문 [마], 제시문 [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를 제시문 [마]의 철학자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권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에서 논한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등장인물 네오를 분석하시오. [20점]